

도입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을
기도 초청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신 임재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Father in heaven how we love you
We lift your name in all the earth
May your kingdom be established in our praises
As Your people declare your mighty works!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and is to come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reigns forever more

본문 빌립보서 1:18-21

- 18 그러면 무엇이냐 겉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19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Philippians 1:18-21

18 What then? Only that in every way, whether in pretense or
in truth, Christ is proclaimed, and in that I rejoice. Yes, and I
will rejoice, 19 for I know that through your prayers and the
help of the Spirit of Jesus Christ this will turn out for my
deliverance, 20 as it is my eager expectation and hope that I
will not be at all ashamed, but that with full courage now as
always Christ will be honored in my body, whether by life or by
death. 21 For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설교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편지 곳곳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의 사슬은 복음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더 널리 퍼지게 했습니다 (빌 1:12-14). 그는 모든 상황, 심지어 고난까지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무대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 1:21) 믿음은 고난을 없애지 않지만,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킵니다. 바울의 믿음은 감옥을 목적의 자리로, 고통을 복음의 선포로 바꾸었습니다 (빌 1:18-20). 존 파이퍼 목사는 「암을 낭비하지 말라」(Don't Waste Your Cancer) 에서 같은 진리를 전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 하시기 위해 허락하신다”고 말합니다. 바울처럼 파이퍼 또한 고난이 헛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고, 그분이 건강이나 안락함, 심지어 생명보다 더 귀하심을 드러내는 초대입니다 (빌 1:20, 29-30).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의 관점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성공, 통제, 건강, 편안함—으로 인생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시야는 새롭게 정돈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들은 종종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약함과 기다림, 그리고 고난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손실로 보였던 일들이 은혜의 도구로 변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할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도록 만듭니다. 믿음은 또한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를 다시 정의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질문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에서 “이 일을 통해 그리스도는 어떻게 높임을 받으실까?” 로 바꿉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판단하지 않고, 십자가를 통해 그분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믿음 안에서 기쁨은 변하는 환경이 아니라 변치 않으시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유익임을 믿을 때, 모든 손실은 그분의 영광 앞에서 가볍게 여겨집니다 (빌 1:21-24). 믿음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편안함’에서 ‘부르심’으로 바꿉니다. 성공이든 실패이든, 치유이든 고통이든 우리는 이제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삽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가치와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빌 1:18, 27-28). 그러므로 감옥에 있던 바울처럼, 병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높인 파이퍼처럼, 우리도 한 가지 목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만 한다면, 그 어떤 대가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빌 1:20)

설교

Paul writes from prison, yet joy fills every line. His chains don't silence the gospel—they amplify it (Phil 1:12–14). He sees every circumstance, even suffering, as a stage for Christ to be magnified: “For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Phil 1:21) Faith doesn't erase hardship—it reshapes how we see it. Paul's faith turned his imprisonment into purpose, his pain into proclamation (Phil 1:18–20). John Piper captures this same truth in *Don't Waste Your Cancer*, writing, “God designs our suffering not to destroy faith but to deepen it.” Like Paul, Piper shows that suffering is not meaningless—it's an invitation to treasure Christ more deeply, to show that He is better than health, comfort, or even life itself (Phil 1:20, 29–30). Faith transforms our perspective by teaching us to see reality through the lens of eternity. Without faith, we interpret life by what is visible—success, control, health, or comfort. But through faith, our vision is reordered. We begin to see that God's greatest work often happens beneath the surface—through weakness, waiting, and suffering. What once felt like loss becomes an instrument of grace. Faith allows us to trace the hand of God even when we cannot see His plan. Faith also redefines what matters most. It shifts our question from “Why me?” to “How can Christ be exalted in me?” We no longer measure the goodness of God by our circumstances but by the cross of Christ. Through faith, joy becomes rooted not in what changes but in Who never changes. When we believe that Christ Himself is our ultimate gain, every loss becomes light compared to His glory (Phil 1:21–24). Faith transforms our priorities from comfort to calling. Whether through success or struggle, healing or pain, we begin to live not for survival but for proclamation—that others might see Christ as supremely worthy (Phil 1:18, 27–28). So like Paul in chains and Piper in sickness, let us live with one consuming purpose: that Christ be proclaimed, whatever the cost (Phil 1:20).

나눔질문

1.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자신의 고난을 전혀 다른 차원의 관점으로 해석하여 기쁨과 소망을 나타냅니다. 오늘 내 삶에 있는 고난을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석해 왔나요? 곰곰히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인지 나누어봅시다.
Even in prison and in suffering, the Apostle Paul interpreted his hardships from a completely different perspective—one that revealed joy and hope. How have I interpreted the sufferings in my life up until now? Take time to reflect, and let's share together what God's perspective might be.
2. 믿음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편안함에서 부르심으로 바꿉니다. 그렇다면 세상안에서 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정의하고 이야기 나누어봅시다.
Faith changes our priorities—from comfort to calling. With that in mind, let's take a moment to redefine and share what our calling in the world is.

마침기도

사랑의 주님 내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나의 어떠한 불편함도 유익하며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선포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아래서 해석하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에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Loving Lord, because Christ Jesus lives in me, even my discomfort becomes beneficial, and I declare that You alone are my only God. Help me not to interpret my life according to the world's values, but to see it under Your sovereignty, living a life that fully reveals the power of the gospel. I pray this in Jesus' name. Amen.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Lord of love, may the words of our mouths and the meditations of our hearts always seek Your will, speaking in ways that encourage and lead our brothers and sisters in love. Help us to lay down our pride and to value others above ourselves in our daily lives. We thank You and pray in Jesus' name. Amen.

기도제목

1. 내 삶의 고난을 고통과 어려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알고 희생과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Help me not to view the sufferings in my life merely as pain or hardship, but to recognize Your good purpose in them—and to move toward the place of sacrifice and love.
2. 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평안과 안녕만을 소망하는 삶이 아니라 삶의 최전선으로 나아가 사랑과 희생과 실천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소서.
May I not seek only comfort and safety in my calling, but live faithfully on the frontlines of life—with love, sacrifice, and active obedience.